

7. 후손 생각하는 역사인식(歷史認識)부터¹⁰⁾

제주사에 손을 부치고 나서 뜻밖의 사람들과 만나게 되었다. 그 가운데는 유배인으로 도배되었던 사람의 후손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목민관으로 도입했던 사람들의 후손들이다.

직접 찾아와 만난 사람들도 적지 않지만 서신이나 전화로 문의해오는 사람들이 많다.

“나의 몇 대 선조 되시는 분이 제주목사(濟州牧使)로 재임했는데 당시 사적이 남아 있는가, 떠날 때는 선정비를 세웠다고 하는데 지금도 남아 있는가” 등등이다.

나는 이런 후손들과 만나고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깊은 감동에

10) 『한라일보』(삼각봉), 2006. 05. 11 (목), 제주문화원장.

빠지게 마련이다. 시간이 수백 년씩 흘렀는데 역사는 끊어지지 않았고 아주 가벼린 것도 아니구나 하는 감동이다. 이런 만남이 되풀이 돼 온 것도 벌써 30년이 되고 있다.

그런데 참으로 심상치 않은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것은 그 많은 후손들 가운데 단 한사람도 실정(失政)을 했거나 가정(苛政)을 한 목사의 후손을 만날 수 없었다는 사실이다.

필자는 과거 어떤 교육기관의 청탁을 받고 조선시대 제주목사의 동향에 관해서 조사해 본 일이 있다. 그 때의 자료에 따르면 조선시대 519년 동안 제주목사는 갑오개혁 때의 관찰사나 도 단위 군수를 포함하여 290명이 도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당시 목사의 임기는 2년 반(30개월)이었지만 실제로 목사 한 사람이 재임한 평균 기간은 1년9개월이었다. 목사들 가운데는 임기를 마치거나 임기를 넘겨 떠난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목사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망했거나 파직되었거나 압송되어 떠난 것을 볼 수 있다.

이원진(李元鎭)의 『탐라지(耽羅志)』를 보면 명환조(名宦條)에 오른 목사는 모두 38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가운데 조선시대에는 22명이 올라 있다. 그 뒤에도 탐라지나 읍지 등은 계속 편찬된 것을 볼 수 있지만 명환조는 여기서 끝나고 더 추가시키지 않고 있다.

필자가 치적기록을 토대로 조사해 본 자료에 따르면 선정을 베푼 목사는 58명(20%), 가정을 한 목사가 14명(4.8%), 실정을 한 목사가 15명(5%)으로 나타났다. 가정과 실정을 합쳐도 29명(10%), 선정이 갑절이나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물론 이것은 기록에 나타나 있는 자료만 놓고 평가했기 때문에 사실 그대로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목사들의 실제 행적을 추적해 보면 참으로 천태만상이다. 15세기의 기건(奇虔)목사는 잠녀(潛女)들이 전복을 캐려고 추운 겨울에도 바다에 드는 것을 보고 평생 전복을 먹지 않았다고 한다. 또 그 뒤의 이약동(李約東) 목사는 임기를 마치고 떠나면서 평소 들고 다니던 말채찍마저 동헌 기둥에 걸어놓고 떠났으며 제주사람들의 은혜로 만들어 준 갑옷도 뒤늦게야 발견하고 제주바다에 던지고 갔다는 일화가 있다.

반면에 17세기의 어떤 목사와 관관은 도민의 재화에만 만족하지 못하고 외국상선이 표착하자 서로 공모하여 배에 승선해 있던 여러 나라 사람을 모조리 죽이고 재화를 가로챘으며 조정에는 침략해 온 왜선을 격멸했다고 보고했다. 뒷날 사실이 들통 나 각각 유배되지만 나라와 제주의 체면을 몽개버린 파렴치 한 행동이 아닐 수 없었다.

똑 같은 목사의 직책이지만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렇게 다를 수가 없다. 그들의 재임은 한두 해면 끝나버린다. 그러나 그들이 남긴 흔적은 천고에 끝나지 않는다.

이제 도백을 뽑는 선거도 며칠 안으로 다가왔다. 말을 탄 사람들은 우선은 당선이 중요한 문제가 되겠지만 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자신이 세상에 어떻게 비춰지고 후대에 어떻게 남느냐 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도백 선거전에 출마한 사람들은 누구나 뒷날 자신의 후손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겠는가 하는 역사인식을 가지고 행동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적어도 자신의 행동이 후손들의 가슴에 못을 박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